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에브프시히오스 순교자

사순절 제4주일

성 요한 클리막스 수사, 성 칼리오베오스 순교자
제4조, 조과복음 1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 46, A 139
- 성 요한 클리막스 수도자 찬양송 / 233, B 267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사도경 : 히브리 6,13-20 / 233, 봉독서 454
- 복음경 : 마르코 9,17-31 / 139, B 97
- 성모송(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62, A 171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에브프시히오스 순교자

그리스도인 중 많은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닌, 미신적이고 맹목적이며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법을 믿고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카드 점을 따르고, 어떤 이들은 행운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상숭배의 부산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행운도 운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느님 한 분이 계시 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 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 갑니다.”(1고린토 8:6) 행운과 운명, 그리고 마법을 믿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이런 것을 부수고 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4월 9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에브프시히오스 순교자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가장 먼저 나서서 카파도키아의 케사리아에 있던 행운의 여신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최후의 심판

우리가 어린 시절 읽던 전래 동화 속에는 착한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맺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정교의 신앙에서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선한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결정하는 기준은 “너희가 하느님을 먼저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였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다. 즉 약자가 된 너의 이웃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받아 주었고 병이 들었을 때 찾아가 보살펴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본 적이 있었느냐?”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앞에 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양쪽에 참석하여 변론을 펴듯이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도 주님께서 재판관으로 24명의 판사들을 세우고 우리를 고소하는 악마들과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는 천사들의 참석하에 판결문이 내려진다. 악마들은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낱알이 들추어내어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려고 하고, 반면 수호 천사는 우리의 드러난 죄를 줄여주기 위해 조그마한 선한 행동을 했을지

라도 이를 낱알이 증명해 주며 변호해 준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여행을 갈 때 타국의 입국장에서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불법으로 소지한 물건을 모두 버린 후에 입국할 수 있듯이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두 죄를 깨끗이 씻고 정결한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일전 일푼의 빛이라도 갠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심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이 거룩한 사순대재 기간에 기도와 금식을 지키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무죄임을 증명해야 한다.

부활절 사순대재는 마치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것과 같다. 백화점의 세일 기간에는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듯이 교회에서도 거룩한 사순대재 기간을 정해놓고 있어서 사순대재 기간에는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며 고백하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이 거룩한 사순대재에 적극 참여하여 그동안의 묵은 죄를 모두 사함받도록 노력해야겠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불신의 세상에서 정교인으로 살아가기 1(트리폰 수도원장)



오늘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속에서 정교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정교인들이 있다. 때때로 이들 비정교인 가족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도 하며, 따라서 정교 신앙의 전통과 실천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대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더 힘든 때일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모든 가족이 고기와 달걀, 유제품을 먹는 반면에 정교인은 금식을 해야만 해서 그렇다.

내겐 한 삼촌이 있었는데 그는 종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고, 그래서 숙모와 사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았었다. 많은 정교인들 또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않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려 투쟁하고 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 실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겠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대단히 그리스도께 헌신하였기에 자신들의 신앙을 부정하거나 또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는 대신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내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많은 개인들이 실제로는 단지 이른바 ‘종교성’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아왔다. 그들은 솔직하지 않은 그리스도교의 한 형태를 보아왔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교 전체를 무시하였다.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남에 대해 판단을 잘 하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보았고, 그래서 어떤 종교적 표현에 대해서도 등을 돌렸다.

☞ 다음 주에 계속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와 대카논 예배 시간 안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이번 주 중에는 **수요일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두 번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대카논 예배**, **금요일 오후 6시** **마지막 성모기립찬양 예식**이 거행됩니다.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화단 꽃 심기

오는 4월 14일 주일 성찬예배 후 부활절맞이 성당 화단 꽃 심기를 할 예정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부활절 꽃, 달걀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장식 봉헌을 신청받습니다. 부활절 달걀은 성당에 기증하는 부분과 신자분이 가져가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제5주간 예식

- 화·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4월 10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오후 5시 : 대카논
- 4월 12일(금) 오후 6시 : 성모 기립 찬양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주십시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